

민주 전당대회 마무리 단계...호남 정치력 약화 우려 커진다

17일 서울 경선·18일 당원대회 대표 이재명 후보 독주 이슈 실종 최고위원 호남주자 민형배 의원 서울서 막판 역전 노려야할 처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흥행 실패'와 '호남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17일 서울 경선·18일 전국 당원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독주 속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 치러지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앞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내부 총질'에 버금가는 후보 간 설전 속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호남 주자로 나선 민형배(광산) 의원이 광주·전남에서 1위 지지율을 얻고도 수도권에서 여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호남 국회의원' 없는 당 지도부 탄성으로 호남이 또 다시 '정치적 변방'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전·세종 경선에서 이 후보는 각각 90.81%·90.21%를 얻어 누적득표율 89.21을 기록했다. 대전 경선에서 김두관은 7.65%, 김지수 후보는 1.54%를 얻었고 세종 경선에서는 김 후보 8.22%, 김 후보 1.57% 득표했다.

앞서 전남 치러진 경기지역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득표율 93.27%를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최고위원 대전 경선에서는 김민석 19.35%, 김병주 16.47%, 정봉주 14.31%, 한준호 12.56%, 이언주 12.49%, 전현희 12.18%, 민형배 7.59%, 강선우 5.05% 득표했다. 또 세종 경선에서는 김민석 18.99%, 김병주 17.29%, 정봉주 15.31%, 전현희 13.57%, 한준호 11.84%, 이언주 11.35%, 민형배 6.78%, 강선우 4.88%를 기록했다.

전날 열린 경기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최고위원 경선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18.03%, 정봉주 15.63%, 김병주 14.02%, 한준호 13.66%, 이언주 11.56%, 전현희 11.54%, 민형배 10.53%, 강선우 5.03%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에 향해서 거면서 내부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최근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봉주 후보 주변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언사가 전해지고 있다. 정 후보는 조만간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병주(왼쪽부터)·강선우·정봉주·민형배 최고위원 후보, 김지수·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 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 최고위원 후보가 당원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서 당의 화합을 이끌고, 외연 확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가 무관심 속에서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민 의원은 서울지역에서의 마지막 대전을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전당대회 초반 열세를 광주·전남에서 극복하고 한 때 누적 득표 5위를 기록했던 민 의원은 경기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서울에서 역전극을 기대해야 할 처지가 됐다.

통상 당내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호남 출향민이 많고, 호남의 여론이 당내 선거를 이끌었던 전례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민 의원의 선전도 기대됐지만 수도권 경선에서는 힘을 쓰지는 못했다.

또한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 3명의 여성 최고위원 후보가 출마를 했고, 5위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5위를 차지한 남성 대신에 가장 순위가 높은 여성에게 최고위원 자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형국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중 33.3% 가량이 호남에 몰려 있고, 수도권 당원 중 20~30%는 호남 출향민이거나 '호남 표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경기에서의 지지부진한 득표율로 서울 경선에서 '호남의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최다선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앞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본산이 호남인데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8년여 남짓 지도부를 배출하지 못한다. 호남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겠느냐"며 "호남정치 복원은 지역 정치권에도 실의를 준다"고 지적했다.

두 달 남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뜨겁다

영광, 민주당서 후보 추가 공모 곡성, 민주당·조국혁신당 경쟁 "재선거에는 투명한 후보 나서야"

영광·곡성이 2개월 앞둔 군수 재선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민들 관심이 저조해 통상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임에도, 압도적 존재감을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으니 선거 때면 꾸준히 얼굴을 드러냈던 후보들이 '해불만하다'며 나선 형국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평가다.

하지만 전직 군수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데 따라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패배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잠재우 투명한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영광군수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군수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영광군수 후보로는 8명이, 곡성군수 후보에는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소속 후보 5명이 등록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도 각 1명씩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무소속 후보도 1명 등록했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양재휘(64)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권(63) 전 전남도의원, 장현(67)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62) 영광군의원 등 5명으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꾸준히 얼굴을 알렸던 후보들이다.

조국혁신당 후보로는 정광일 전 재외동포특별위원장이 등록을 했고 진보당에서는 영광군 대마면 이장을 지내면 30년 농민회 활동을 해온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장이 나섰다. 오기원 영광 난 연합회 회장은 무소속으

로 등록을 마쳤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영광군수 후보자 추가 공모에 나선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미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황에서 후보자 추가 공모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무소속(2014년), 민주당(2018년), 무소속(2022년) 등을 선택한 민심을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곡성군수 후보로 등록된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유근기(62) 전 곡성군수, 강대광(61) 전 곡성군의원, 정한대(64) 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손경수(59) 전 죽곡면 자치회장과 무소속 이성로(64) 전 포곡대 교수, 무소속 조상래(66) 전 전남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두 차례나 군수를 지낸 유 후보와 강 전 군의원, 정 전 도의원과 민주당 경선 뿐 아니라 조 전 도의원과 본선 경쟁도 눈길을 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경수 복권' 당정 이견... '윤한갈등' 재발 조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한동안 대표 취임 3주 만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

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한 대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9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일단 대통령실과 친연계에서는 한 대표의 문제 제

기 방식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결정됐는데, 지금 와서 복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최종 결정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가 1차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대표 측도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윤한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부동산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 산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외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상담문의 · 010-6648-0725